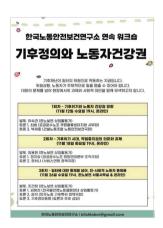
조건희 상임활동가

어느덧 11월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 두 개의 회원토론회를 안내하려 합 니다.

첫 번째는 <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관련 회원토론회>입니다. 지 난 9월, 이재명 정부는 사고 없는 일터를 표방하며 "노동안전 종합대 책"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 대책에는 '위험의 외주화 근절' 등 구조적 원 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, 예방의 주체로 현장 노동자를 호명하기도 했 습니다. 언뜻 보기엔 그동안 사회운동이 주장해 온 내용을 반영한 듯 여겨집니다.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거나, 시기별/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할 과제들을 뭉뜽그 려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. 젠더 관련한 대책 역시 부재합니다. 한노 보연은 그동안 정책의견서 등을 통해 대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 시에, 이를 현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 다.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, 현장 노동안 전보건 운동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. 11월 11 일 19시,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!



두 번째는 <기후정의와 노동자 건강권 연속 워크숍>입니다. 한노보연 기후정의팀은 기후 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증지권, 자본의 과잉생산을 막고 노동자가 생산량과 생산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현장 통제권이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 는 핵심임을 주장하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. 이번 연속 워크숍에서는 이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고, 해결해야 할 과제와 사회적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. 워크숍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 며 일정은 각각 11월 12일, 18일, 26일입니다.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, 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, 그리고 노동자 현장 통제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현장토론이 이어집 니다. 나아가, 워크숍의 성과와 과제를 이후 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.



역대급 폭염이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추워지다니요. 널뛰는 기온과 함께 찾아오는 감기에 유 의하시고, 앞으로도 함께 잘 활동해 가요!